

선원노련 전국대의원대회 찾아 선원 노고에 감사의 마음 전해

-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, 2024년 전국해상노동조합연맹 정기 전국
대의원대회 참석 -

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은 2월 23일(금) 부산 롯데호텔에서 개최된
‘2024년 전국해상선원노동조합연맹(이하 ‘선원노련’) 정기 전국 대의원대회’에
참석했다.

송 차관은 △42년 동안 승선하여 원양산업의 중흥기를 이끈 산 증인인
‘곽해두’ 신동아수산 기관장과 △27년 동안 이직 없이 모범 선원으로 장기
승선 근무해 온 ‘여인장’ 천경해운 기관장 등 총 8명에게 해양수산부 장관
표창을 수여하며, 피땀 어린 노동의 대가로 우리나라 경제발전의 소중한
디딤돌이 되어준 우리 선원들의 노고와 성과를 격려하였다.

정기 전국 대의원회 축사에서 송 차관은 “지난해 11월, △승선주기 단축
△유급휴가 확대 △선박 내 인터넷환경 개선 등의 내용을 담은 노-사-정
공동선언문 발표로 상생의 모습을 보여주신 선원노련의 노력과 헌신에 감사
드린다.”라며, “정부는 앞으로도 선원의 권익과 지위가 향상되도록 현장의
목소리를 경청하고 적극 소통하겠다.”라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선원정책과 선원정책과	책임자	과 장	이민석 (044-200-5740)
		담당자	사무관	류충현 (044-200-5742)